원예농산물 맞춤 컨설팅 '호응'

군산시농기센터, 원예농산물 농업인에 이론 · 현장 교육 실시… 농산물 품질향상 기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가 원예농산물 7개 품목에 대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배 기술 등 시기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하여 관내 농산물 품질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센터가 맞춤 컨설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이상기후와 급변하는 소비트렌드를 맞춰 타시군과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요구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현재 센터는 2022년부터 연중 40회 이상의 현장 밀착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원예농산물 재배 농업인들 사이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물 재배 능력이 배양되고 작목 조직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작년까지 진행하던 기계화 양파, 시설 딸기, 시설 멜론, 유럽계 포도 4가지 품목에 노지채소(감자, 당근, 대파) 3가지 품목을 추가해 현재는 전략작목 7개 품목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설 과채류인 딸기와 멜론은 모니터링과 온실 환경관리 및 양수분 조절을 통해 평당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유럽계 포도는 2년차 과수의 수형 관리와 생육기 전반의 재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노지채소의 경우 양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해 기계화 재배 기술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아울러 감자와 양파, 대파는 토양 준비부터 수확기까지의 관리 기술 등 필수적인 내용을 이론과 현장을 함께 진행하며 재배 시기별로 맞춤형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컨설팅을 통해 관내 원예농가의 재배 어려움이 해결되고 현장에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올해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농업인은 "재배 시기별로 현장에서 밀착 재배 기술 교육을 해주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며 "교육 횟수를 거듭할수록 재배 능력이 향상된 것 같다"며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8월 9일까지 생산지 읍 · 면 · 동사무소 방문해 신청 가능

FTA로 피해 입은 농가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군산시가 8월 9일까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캐나다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를 본 품목에 대하여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가 지원대상 품목에 선정됐다.

군산시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지원 희망 농가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의 피해를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이며 직불금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축산업 등록(허가)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이다.

군산시는 2023년 직접 생산 및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시행에 따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반드시 신청 기한 내 생산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채왕균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통해 한육우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가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 선정

왕궁 금오마을 · 남중동 남성맨션 대상 사업 추진

익산시가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익산시는 치매안심 우수마을로 지정된 '왕궁 금오마을'과 '남중동 남성맨션'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인지 저하자 및 치매환자 가정에 낙상 예방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가정용 안전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과 안전물품 사용법,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참여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치매안심센터(063-859-75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출범

제10기 위원 39명 위촉… 2026년 7월 12일까지 활동

민간위원장 성시종 학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 선출

익산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임원 선출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시는 지난 22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제10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제10기 위원은 사회복지 각계각층 39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7월 12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인 정헌율 익산시장의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위원장으로는 성시종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장이, 부위원장으로 강성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선출됐다.

성시종 민간위원장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하며 해답을 찾는 협의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여름방학은 익산 백제왕궁놀이터에서"

양말목 매듭 활용 네잎클로버 · 문화유산 3종 이름표 만들기 진행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역사·체험 프로그램 '백제왕궁놀이터'를 운영한다.

백제왕궁놀이터는 주말마다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익산의 문화유산과 환경보호 실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며 △양말목 매듭을 활용해 네잎클로버 만들기 △왕궁리오층석탑, 사리병, '수부' 도장을 찍은 기와 등 문화유산 3종 이름표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가능하며, 매일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백제왕궁박물관 누리집(iksan. go.kr/wg/) 또는 전화(063-859-479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 27일 개최

'신선의 섬' 선유도에서 낭만적인 여름 노을을 즐기는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가 오는 27일 선유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선유도 여름 노을축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선유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타악 퍼포먼스와 직장인 밴드 공연, 황금빛 노을 바라보기,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되며, 특히 댄스팀과 함께하는 디제잉 파티와 불꽃놀이로 방문객들의 선유도에서 추억 만들기에 정점을 찍을 예정이다.

선유도 해수욕장은 7월 10일 개장했으며, 8월 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한 여름밤의 축제에 많이 오셔서 잊지 못할 여름 추억 하나를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시민문화역사동아리 '씽 어게인 익산' 성료

익산시가 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씽(Think)어게인 익산'을 성황리에 마쳤다.

23일 문화도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씽(Think)어게인 익산'은 시민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해 배우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문화역사동아리 지원사업이다. 시민들과 함께 다시(Again) 생각(Think)해 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시작됐다.

올해는 초·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총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백제에서 근대까지 익산을 빛낸 다섯 개의 별'이라는 주제에 맞춰 무왕, 소세양, 채용신, 정정렬, 이병기 등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익산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을 비롯해 익산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황등중학교, 익산교육지원청 어울누리 등이 참가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군산대학교 학생팀이 참여해 타지역과의 협업을 통한 익산의 역사·문화가치 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지난 21일 청년시청 1층에서 문화역사동아리 '씽(Think)어게인 익산'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익산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은 정정렬 선생의 업적을 바탕으로 '국악 창작동요'를 선보였고, 익산고등학교는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익산문화유산 관광 홍보 팸플릿'을 발표했다.

이어 전북제일고등학교 '익산을 빛낸 5인의 인물 마스코트' △황등중학교 '무왕 주제 뮤지컬' △익산교육지원청 어울누리 '익산 빛낸 인물 패러디 영상' △군산대학교 '익산과 군산 근대문화유산 홍보 팸플릿 및 영상' 등 역사·문화 홍보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